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장 애 리
(이화여대)

1. 서론

통번역과 문화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통번역의 주요 의사소통 매개체인 언어가 태생적으로 문화라는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통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임을 전제할 때, “문화가 곧 커뮤니케이션”(Hall 2000a: 141)이라는 홀(Hall)의 문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신자와 발신자 간에 ‘문화’라는 근원적 맥락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이 실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화는 양날의 검과 같이 충분한 공유와 이해가 이루어질 경우 소통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지만 반대의 경우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통역과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사소통의 장애와 갈등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는 통번역사에게 문화능력이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통번역사 자신이 상이한 문화적 특수성 혹은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통번역의 과정에서 텍스트¹⁾의 정확한 의미를 추출하고 효과적으로 문화를 중개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생산된 통번역의 결과물은 상이한 문화권 간의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고 상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통번역과 문화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통번역사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능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문화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통번역 학계에서 진행된 문화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의사소통의 내용(텍스트), 주체(참여자), 결과(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문화능력의 이론적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현재 통번역학계에서 ‘문화능력’에 대한 관련 선행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미미하다. 그 중 문화능력에 대해 비교적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시도한 김효중과 비테(Witte)의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통번역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능력 중 하나로서 문화능력의 개념을 제시한 노이베르트(Neubert)와 샤프너(Schäffner)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본 논문에서의 ‘텍스트’는 통역에서 사용되는 구어텍스트와 번역에서 사용되는 문어 텍스트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1 김효중과 비테

김효중은 번역 수행을 위한 문화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국내 학자이다. 그는 번역이 단순히 언어기호(문자)의 전환이 아닌 문자 속에 농축되어 있는 해당 민족의 정신과 세계관 등의 고유한 문화를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김효중 2004a: 18).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이 특수한 형태의 문화 간 의사소통이며 번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문화 간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전제할 때 번역자의 두 문화권에 대한 능력, 즉 문화능력은 번역 수행의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김효중(2004a)은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문화능력으로서 우선 통번역의 대상이 되는 출발과 도착 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텍스트를 통해 표현된 해당 문화권의 관습과 전형적인 행위 유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구체적인 번역 과정에서 문화정체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소²⁾에 대한 인식 능력, 출발어 텍스트에 묵시적으로 녹아 있는 문화적 요소를 자국의 텍스트 및 문화에 명시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문맥³⁾에 대한 전달능력,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텍스트의 형태 및 유형 등의 의사소통 관습에 대한 지식 등을 문화능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김효중(2004a: 57-60)은 문화능력이 두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를 비교하는 ‘간(間)문화능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두 문화의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문화와 관련하여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번역자가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면 문화 간 접촉의 과정에서 상호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정 및 보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화를 중재할 수 있게 된다.

-
- 2) “A라는 문화의 구성원들이 관련성(relevant)이 높다고,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B라는 문화의 사회적 현상과 비교할 때 A문화에 특유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현상”(Nord 2006: 37)이다.
- 3) “어느 한 민족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회-문화적으로 자명한 사실을 상황문맥”(김효중 2004a: 41)이라 한다.

결론적으로 김효중이 말하는 문화능력은 자국과 타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번역 수행과정에 적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도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간문화능력을 발휘하여 문화 간 예측과 보상 그리고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중개자로서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다.

다음으로 비테(1996: 73)는 기본적으로 기능주의 번역학에서 통번역을 특수한 형태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통번역사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전문가로 간주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통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화능력을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테는 통번역사의 이중문화능력(bicultural competenc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최소한 두개의 서로 다른 문화 공동체가 상호 교류하고자 할 때 그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도록 문화 및 상황적으로 적절하게 행위를 해석하고 행동하는 능력.” (Witte 1996: 73)

비테의 정의가 다른 통번역학자들이 제시하는 문화능력의 개념과 차별화되는 것은 문화능력의 범주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문화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로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많은 통번역 의뢰인들이 효과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을 수행하기에는 상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관점이 제한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통번역 과정에서 실령 내용과 의도가 전달되더라도 만약 참여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실패한다면 성공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통번역사가 텍스트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텍스트 외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기존 통번역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범주를 한층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는 번역학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학 간에 적극적인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며 통번역을 위해 필요한 문화능력(translation specific cultural competence)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국뿐 아니라 타국의 문화에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식적으로 배우는 능력이며,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당사자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의 의사소통적 필요에 부합하고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의 문화를 관련지어 비교하는 능력이다.” (Witte 2000: 163, Schäffner 2003: 93 재인용)

비테는 위의 정의를 통해 통번역사가 두 문화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깨어 있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의식적인 학습과 상호 문화에 대한 비교능력을 문화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2.2 노이베르트와 샤프너

노이베르트는 유능한 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 외에 훨씬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번역능력을 구성하는 질적 요소로 언어, 텍스트, 주제, 문화, 전이능력을 제시한다. 그는 문화능력의 필요성이 문학번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 텍스트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번역사가 텍스트 심층의 문화적 기저를 탐구하고 이를 언어를 통해 표현된 텍스트의 표층과 결합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문화능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문화에 따라 상이한 텍스트 타입과 장르를 고려하는 것 역시 문화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번역사가 텍스트 맥락에 내재된 문화 기저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언어 및 문화적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출발과 도착 문화 간의 차이를 조절하고 중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Neubert 2000: 9-10).

샤프너(Schäffner 2000: 143-147) 역시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언어, 텍스트, 주제지식, 리서치(전략적 문제해결 능력), 전이 능력을 주장하며 그 중 하나로 문화능력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문화능력은 도착어 국가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총망라한다. 그의 문화능력에 대한 정의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번역사에게 필요한 문화능력의 전형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안하는 문화능력은 도착 문화권에 국

한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백과사전적이고 평면적인 지식에 한정되어 체계성이나 실행성 면에서 제약을 갖는다.

선행 연구자들의 문화능력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네 학자 모두 공통적으로 문화능력을 텍스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인지적 배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효중과 비테는 이에 더해 텍스트뿐 아니라 참여자(외국인, 출발어권의 발신자, 도착어권의 수신자 등) 간의 문화 차이를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을 문화능력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기존의 선행 학자들이 제시하는 문화능력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한정되며 통번역을 통해 창출되는 의사소통 ‘결과’가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정보와 문화가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교류되고, 바야흐로 문화번역(정혜옥 2010)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통번역사에게는 언어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화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통번역사에게 필요한 문화능력의 범위는 기존의 통번역 ‘과정’에 중점을 둔 텍스트 해석과 참여자 간 문화 중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가져 올 ‘결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의사소통의 내용인 ‘텍스트’, 의사소통 주체로서의 ‘참여자’, 그리고 의사소통의 결과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전제한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개념을 추출하고자 한다.

3.1. 텍스트 차원

통번역 수행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통번역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은 데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의미를 내용과 형태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논의하는 배경⁴⁾에서 알 수 있듯이, 텍스트는 언어

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층과 언어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심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외적 의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언어를 제외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만약 이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로 상징한다면 텍스트는 곧 언어와 문화의 결합체이며 표층적으로 드러난 명시적 의미와 심층적으로 내재하는 비명시적 의미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텍스트가 갖는 이러한 입체적인 구조적 특성은 텍스트의 총합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1980년 오월, 아픈 상처 위에 눈은 내릴까요?”라는 문장을 통번역한다고 가정할 때, 텍스트 표층으로 보여지는 ‘1980년 오월’이라는 언어적 의미 외에 언어외적 의미, 즉 한국의 현대사에서 민주화 항쟁으로서의 비극적 경험, 민중의 저항 등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텍스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언어외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두 문화권에 대한 이해는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문화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통번역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문제는 텍스트의 이해가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김효중(2004a: 53)에 따르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주관적 판단과 해석에 좌우되는데 이는 텍스트의 언어외적 의미를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관성은 텍스트의 표층보다는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심층을 구성하는 언어외적, 비명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텍스트 이해의 과정 특히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결국 문화적 기저를 이해하고 심층의 의미를 추출한 통번역사와 그렇지 못한 통번역사 간에 통번역의 결과와 품질에 있어서

4) 소쉬르(Saussure 1922)는 의미를 지칭하는 기호를 언어적 형태인 시니피앙과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으로서의 시니피에로 구분하며, 나이다와 테버(Nida and Taber 1969)는 의미를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으로서의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와 지시적 의미와 관계없이 언어사용자의 사회 및 심리적 특성으로 파생되는 연상과 감정으로서의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구트(Gutt)는 의미를 명시적 의미(explicature)와 비명시적 의미(implicature)로 구분한다(정호정 2008: 82).

극명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결국 통번역사가 의미 파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 즉 문화의 기저를 파악하고 배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텍스트의 총합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통번역의 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문화적 역량은 일반적인 이중 언어 구사자와 통번역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과 해석의 주관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문화’는 텍스트의 궁극적 의미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지적 자원이며 그런 맥락에서 두 문화에 대한 이해는 통번역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문화능력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3.2 참여자 차원

통번역이라는 행위는 통번역을 필요로 하는 수신자와 발신자, 양자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통역사와 번역사, 그리고 통번역이라는 과업을 부여하는 의뢰자와 출판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또한 통번역 과정에서 참여자 간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는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따라서 참여자의 측면에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고찰할 때 문화는 참여자 간 중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통번역사가 ‘문화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 학자들(정호정 2008, 남원준 2008)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문화 중개의 층위가 지금까지 주로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고 많은 경우 ‘참여자’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통번역과 관련된 논의가 주로 ‘텍스트’에 집중되었고 특히 통번역사의 경우 의사소통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서 ‘투명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요구되는 관습적인 기대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번역사는 텍스트뿐 아니라 참여자 층위에서 문화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통역의 경우 참여자들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동시, 순차, 지역사회 등의 통역 유형 혹은 국제회의, 비즈니스 등 통역 내용에 따라 문화 중개의 양상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

겠지만 참여자 차원에서 문화중개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면 대 면 의사소통의 특징은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각자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 비추어 상대를 평가하고 나름의 심상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역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더욱이 통역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당사자들 간의 소통임을 감안할 때 개인적으로 구축한 심상 외에 문화적 차이와 몰이해에서 오는 오해와 왜곡이 겹쳐져 자칫 이러한 문화적 차이들이 효과적으로 중개 혹은 조율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⁵⁾.

번역의 경우 주로 텍스트 차원의 문화중개가 이루어지지만 역시 수행과정에서 번역 과업을 부여하는 의뢰인과 원저자 그리고 출판사 사이에서 번역사의 문화중개적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로 비테(1996)는 번역 의뢰인들이 상대국에 대해 부적절한 선입견과 제한된 지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 번역사의 문화 중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때에 따라 번역사는 도착문화권의 출판 실정 및 독자층의 니즈를 잘 모르는 원저자와 출발 문화권의 관련 서적 출판 동향에 대해 잘 모르는 출판사 사이에서 문화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주체 간의 문화중개는 출판 번역의 성사여부는 물론 시장에서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통번역 과정에서는 두 개의 차원에서 문화중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텍스트 차원으로 언어와 문화의 상호의존적 관계 및 “텍스트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페어메어(Vermeer, 김효중 2004a 재인용)의 정의를 고려할 때 이는 통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둘째 차원은 참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문화중개로 출발 및 도착 텍스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진 않지만 참여자 간에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갈등 및 장애를 예측 및 교정하는 통번역사의 문화중개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번역

5) 예를 들어 독일인과 한국인이 협상을 하는 경우, 업무와 개인적인 사항을 엄격히 구분하고 바로 본론에 대한 협의를 준비하는 독일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흔히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족관계나 취미 등 개인적인 내용의 한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론을 협의한다. 이러한 두 문화권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서로를 비전문적이고 예의 없으며, 인간미 없고 차가운 상대라고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인상은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목적을 실현하는 데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통번역 과정에서 텍스트와 참여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중개는 상호보완성을 갖는다.

3.3 사회적 차원

텍스트와 참여자 차원에서 문화는 통번역을 위한 ‘이해’ 및 ‘중개’의 대상이라 하면 사회적 차원에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화는 ‘전이(轉移)’⁶⁾되고 결과적으로 ‘변용(變容)’⁷⁾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다.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지금과 같은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했던 통역과 번역이라는 의사소통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의 문예부흥,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등 무수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통번역은 단순한 언어 행위가 아닌 문화의 전파와 수용을 담당하는 사회문화적 행위이며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다.

통번역의 사회문화적인 영향력과 기능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현시점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통번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영역에 걸쳐 상상을 초월한 혼란과 마비가 초래될 것이다. 이와 같이 통번역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국의 대문호 루쉰이 동구권 국가의 저항문학을 다수 번역 소개하여 중국 공산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다지고, 가족애와 유교적 가치관이 녹아 있는 한류 드라마 열풍이 중국 내 유교사상에 대한 재평가 및 부흥⁸⁾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번역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유입은 기존 문화와의 충돌과 융합 그리고 통섭⁹⁾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바탕이 된

6) 문화전이(Kulturtransfer)는 문화 간의 상호접촉과 충돌을 통해 일어나는 제반의 문화적 변용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문화가 연결되고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 동적인 과정에 중점을 둔다(Schmale 2006: 64),

7) 문화변용은 문화전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문화적 변화에 중점에 둔다(Schmale 2006: 64).

8) (강보유 2007, 김범송 2008, 장애리 2007)

다. 물론 통역의 경우 번역과 달리 의사소통의 결과가 구체적인 자료로 남지 않아 영향력 면에서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문화 유입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매우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통역이 창출하는 문화전이의 효과와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허만스(Hermans 2009: 95)가 언급했듯이 통번역은 투명하고 순수하며 중립적인 언어활동만은 아니며 사회 및 이데올로기 구조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활동이다. 그렇다면 이를 수행하는 통번역사 역시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닌 사회문화적 행위 주체로서 거듭나게 된다. 허만스(Hermans 2000)는 번역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혹은 기대되는 맥락 속에서 번역을 수행하기에 오롯이 ‘번역만(just translation)’을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현실적으로 통번역사들은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텍스트 통번역 이상의 ‘번역적 행위(translational action)’¹⁰⁾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생산한 통번역의 결과는 역시 그들의

- 9) 통섭(通涉)은 ‘서로 사귀어 오간다’(국립국어원 인터넷 국어사전)는 것을 뜻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지식의 통합,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결합해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통섭’이라는 단어를 대중화시킨 생물학자 최재천은 ‘통합’이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라면, ‘융합’은 하나 이상의 물질이 함께 녹아서 화학적으로 서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고, ‘통섭’은 이질적인 것들이 한데 섞이고 녹아 있는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부부가 결혼하여 낳은 아이를 예로 들고 있다(최재천 2010: 47-48).
- 10) 번역적 행위(translational action)는 유스터 홀쯔 맨타리(Justa Holz-Mänttari)가 출발 텍스트나 도착텍스트와 무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문화 간 전이(intercultural transfer)에 적용되도록 1981년에 고안한 술어이다. 맨타리는 통번역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합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총칭적 명사로 ‘번역적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기능주의 번역학에서는 통번역을 문화 간 의사소통의 특수한 형태로 규정하고 매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출발텍스트의 유무(有無)에 따라 ‘(통)번역’과 ‘(통)번역적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즉 ‘번역’이 협의의 관점에서 출발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번역적 행위는 통번역자가 실제 수행하는 일의 범위로써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조언이나 문화컨설턴트의 역할 혹은 의사소통의 방식과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Nord 2006: 29-30, 238).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텍스트 통번역 이외에 통번역사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참여자 간의 문화중개를 포함한 ‘번역적 행위’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또한 통번역이 갖는 창의적 결과로서 번역물에서 원작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서의 ‘잔여적 파생 몫(remaining derivative)’¹¹⁾은 남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몫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텍스트, 참여자,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통번역과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통번역사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능동성’은 번역사가 발화되고 쓰여진 텍스트의 내용을 의사소통의 목적과 관계없이 임의로 첨가나 삭제 혹은 수정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통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모든 선택에 대해 합당하고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전이의 관점에서 “누가 번역서를 선정했으며, 선정의 배경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Lefevere 1992: 1) 등의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비판적인 통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의 다양한 역학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전략은 무엇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통번역사는 통번역이라는 사회문화적 행위를 통해 문화의 전이와 변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간 통섭에 기여하게 된다.

11) 잔여적 파생 몫(remaining derivative)은 번역을 통해 원작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부분으로서 거꾸로 말해 번역 텍스트에서 원작의 몫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을 뜻한다(Venuti 2006: 14).

4.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개념

앞서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통번역을 문화 간 의사소통 행위로 전제하고, 의사소통 대상으로서의 텍스트, 상호작용의 주체인 참여자, 의사소통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에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텍스트 차원에서 문화는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 및 텍스트 해석의 주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텍스트의 궁극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지적 배경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텍스트 뿐 아니라 참여자 차원에서 문화적 차이의 조율과 중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통번역이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등 사회문화적 맥락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활동이며, 특히 통번역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통번역을 통한 문화 전이와 변용의 과정에서 통번역사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문화적 행위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 한다.

“통번역 텍스트의 표층과 심층적 의미를 결합한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고, 텍스트 및 의사소통 참여자 간 문화적 차이의 조율과 중개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며,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전파를 통해 문화를 전이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간 통섭에 기여하는 능력”

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보면, 통번역사에게 요구되는 문화능력은 우선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 텍스트의 의미 파악을 위해 인지적 배경이 되는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문화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인 문화 간 차이를 중개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상이한 문화의 전파와 수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담론을 창출하고 문화 간 통섭을 이끌어내는 문화전이능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문화를 이해하고, 중개하고, 전이하는 세 가지 능력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통번역의 대상인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재표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텍스트와 참여자 차원에서 문화 중개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문화중개가 이루어져야 텍스트의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 전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세 가지 능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총합적인 문화능력으로서 작용한다.

〈그림 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5.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구성요소

앞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능력의 개념을 정립하였다면 이제 문화능력을 구성하는 문화이해능력과 문화중개능력 그리고 문화전이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겠다.

5.1 문화이해능력

‘문화이해능력’은 말 그대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통번역사가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해해야 하는 문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 절에서는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지식’과 이해의 방법으로서의 ‘문화인식’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5.1.1 문화지식의 개념적 배경

통번역사가 이해해야 하는 문화지식의 범위는 사실상 한계를 설정할 수 없

다. 그런 이유로 통번역을 위해 필요한 언어외적 지식 혹은 문화지식으로 자주 ‘세계지식’ 혹은 ‘백과사전적 지식’이 언급된다. 하지만 이렇듯 무한대의 지식의 범위 혹은 추상적인 문화개념은 통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요인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김효중 2004a: 91). 그런 의미에서 김효중(2004a)은 문화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양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통번역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화능력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현재 ‘문화’라는 단어가 갖는 광의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문화지식의 범주에 대해 충분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통번역학자들이 제시하는 문화에 대한 정의와 관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통번역을 위해 이해가 필요한 문화지식의 범주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중시하고 총체론적 관점에서 문화를 범주화 한 나이다(Nida), 카탄(Katan), 하팀(Hatim)의 문화 정의와 관점을 참조하고자 한다.

우선 나이다(1964: 90-91)는 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주목한 대표적인 번역학자로 문화와 언어 그리고 번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언어와 민족학(ethnology)¹²⁾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하며 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사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즉 민족학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만약 이러한 지식이 결여되었을 경우, 번역사는 문자 그대로를 번역하는 축자역과 이국적인 어휘를 회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번역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번역 문제가 야기되는 영역을 생태학(ecology),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사회문화(social culture), 종교문화(religious culture), 언어문화(linguistic culture) 다섯 개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생태학은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상태, 즉 기후나 지형, 동식물 등 인간이 생존하고 문명을 만들어가는 터전인 자연환경을 뜻한다. 물질문화는 문명의 발전에 따라 만들어진 인위적 가공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질적으로 보여 지는 대상에 문화적 의미가 부여되기에 생태학보다는 조금

12) 인류학의 한 분야로 제민족(諸民族)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doopedia 백과사전).

더 복잡하게 고려되어야 한다¹³⁾. 사회문화는 사회적 제도와 행위를 포괄하며 나이다는 성경번역학자인 만큼 특별히 종교문화를 따로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서로 다른 언어의 음성, 형태, 통사, 어휘적 특징 역시 번역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화 영역으로 포함시켰다(Nida 1964: 91-97).

나이다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언어의 의미 도출과 텍스트 맥락의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에 접근했다면, 다음으로 소개 할 카탄은 통번역을 문화 간의 의사소통 행위로 인식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따라서 그의 문화에 대한 정의와 틀은 기본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문화인류학자 홀(Hall 2000a)의 문화 개념에 기대어 있다. 카탄은 홀이 빙산모형(iceberg model)을 통해 제시한 기술적 문화(technical culture), 공식적 문화(formal culture), 비공식적 문화(informal culture)로 구성된 문화의 세 가지 차원을 통번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개념화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기술적 문화를 ‘발전된 문명’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과 비즈니스 관련 용어 및 기준 등을 대표적인 통번역의 사례로 들고 있다. IT기술 및 의학용어 등 기술적 차원의 언어기호는 분명한 지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언어 외적 맥락의 개입이 적어 통번역 과정에서 그만큼 의미 손실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공식적 문화는 기능주의에 기반한 ‘적절성’에 초점을 둔 문화로 관습, 생활방식, 사회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카탄은 글로벌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 및 웹사이트 등의 현지화 번역을 공식적 문화의 대표적인 통번역 사례로 들고 있다. 규범과 관습이 중시되는 공식적 문화에서 통번역 수행과정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내용의 정확성뿐 아니라 번역 기능과 담화형식이 도착문화권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적절성이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 문화는 하나의 인지체계로서 특정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세계관과 신념, 핵심적인 가치 등을 포괄하며 기업 합병 과정에서 통번역사의 문화 중개 역할을 통번역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탐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는 모든 언어는 기호이며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통번역을 수행할 때는

13) 성서 번역에서 원주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성문(gate)’을 번역 사례로 들고 있다.

대상(object)으로서의 기표(signifier), 의미로서의 기의(signified), 총합적 관계를 내포한 궁극적 의미(interpretant)라는 기호의 3가지 차원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단위는 대상으로서 관찰되는 기표가 아닌 기표 뒤에 숨겨진 궁극적 의미이며 이는 모든 텍스트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를 결과물(product), 행위(practice), 관점(perspective)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결과물’은 사람 혹은 특정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용 혹은 채택된 산물(artifact)로서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도구, 문서, 건물, 음식, 의복에서, 감각적으로 더욱 정교한 지각을 필요로 하는 언어, 음악, 교육, 가족, 경제, 정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행위’는 한 문화권에 속한 구성원의 개인적인 행위 혹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특정한 생활양식, 사회적 규범에 의거한 행위를 포함하는 사회적 사실(sociifact)이며, 마지막으로 ‘관점’은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지각과 가치, 신념,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산물인 결과물을 창조하는 배경이 된다. 또한 특정 문화적 행위를 유도하고, 모든 사물과 행위 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관과 삶의 철학으로 정신적 사실(mentifact)을 뜻한다.

5.1.2 문화지식의 체계화

앞서 문화지식의 체계화를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통번역 학자들이 제시하는 문화의 정의와 관점을 살펴보았다. 나이다와 카탄 그리고 하툼의 문화 정의와 범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 학자 모두 문화를 총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서로 명명하는 것은 다르지만 총체로서의 문화를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세 학자가 분류한 문화 범주 및 구체적인 문화요소의 내용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관찰가능성과 의식성 그리고 구체성¹⁴⁾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 학자의 문화 범주를 분석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14) 여러 문화인류학자 및 사회심리학자들은 관찰가능성(observability)과 의식성(consciousness), 구체성(concreteness)의 정도에 따라 문화요소의 수준을 분류하고 있다(이건표 2001: 54-57, 이정주 2006: 11 재인용).

를 표층과 중층 그리고 심층 문화로 재분류하여 통번역사에게 필요한 문화지식을 범주화하는 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5.1.2.1 표층문화

표층문화는 가시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의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실체를 갖는다. 동시에 현상적(phenomenal)이며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지된다. 표층문화란 나이다가 제시한 ‘물질문화’와 카탄이 발전된 문명으로 정의한 ‘기술적 문화’, 그리고 하탐이 문화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결과물’과 ‘대상’으로서의 문화를 포괄하는 범주로 특정 문화권의 예술, 의복, 주거, 도구, 언어, 음식, 의례, 교통 등 유형의 인공적 산물에서부터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 무형의 산물에 이르는 사람이 창조하고 만들어 낸 모든 인공적 산물과 물질문명, 한 문화를 대표하는 외현적 상징을 포함한다.

하탐(2010)은 번역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대상 뒤에 숨겨진 궁극적 의미이며 이를 위해 표층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관, 신념, 세계관 등 심층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번역사의 표층문화에 대한 이해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표층은 그가 말하는 세계관 등의 정신적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통로로서 표층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심층적 의미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번역이 이해와 재표현의 과정이라 전제한다면 표층과 심층 의미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말하는 궁극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층문화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현상적이고 상대적으로 가변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층문화가 갖는 현상적인 특징은 두 가지를 뜻하는데 앞서 언급한 현상적 특징이 ‘본질이나 객체의 외면에 나타나는 상’으로서의 현상(現象), 즉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관찰 가능성’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또 하나의 현상(現狀)적 측면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즉 현재라는 ‘시점’에 초점이 있다. 통번역사는 항상 최신의 정보와 상태 그리고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번역사들이 다루는 정보와 텍스트는 항상 최신의 내용,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표층적으로 드러나 관찰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이다가 제기했던 생태환경 역시 표층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문화권의 생

태환경은 해당 문화를 잉태시키는 모태라는 점에서 해당 문화권의 기후, 지리 환경, 천연자원, 동식물 등 자연 조건에 대한 이해는 해당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된다.

5.1.2.2 중층문화

중층문화는 특정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공유하고 체화되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약속과 관습, 가치 및 행동 방식, 도덕 및 윤리적 기준 등으로 한 사회의 참과 거짓, 선과 악, 호와 불호 등을 구분하는 암묵적인 기준과 잣대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행동 양식의 준거가 되는 사회적 행위 규범을 포함한다. 중층문화는 사람들의 전의식(preconsciousness)¹⁵⁾ 속에 존재하여 막상 누군가가 물어보기 전에는 자신의 가치 기준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문화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의 경우 해당 문화권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황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사회의 관습과 규범을 파악하게 된다. 김효중(2004a)은 통번역사가 갖춰야 하는 문화능력으로서 텍스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상황맥락’, 즉 해당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명하여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을 통번역의 과정에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통번역사는 텍스트 및 발화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출발 및 도착 문화권의 사회문화적인 행위규범과 관습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더욱이 특정 문화의 사회규범은 문화소와 같이 텍스트에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민감한 척수로 언어와 행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규범을 포착해야 한다.

다른 한편 통번역사가 사회문화적 규범과 관습만큼이나 숙지해야 할 것이 바로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언어행위 규범이다. 언어행위의 규범과 관습에는 담화형식, 장르특성, 텍스트 규범 등 의사소통의 방법 및 형식과 관련된 규범과 관습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통번역적 관점에서 중층문화에 대한 이해는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유도하고 규제하는 사회적 관습과 규범, 윤리 및 도덕

15) 의식 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처리가 일어나서 의식 단계의 직전에 이른 혹은 그런 상태와 관련된 것(곽호완 외 2008, 실험심리학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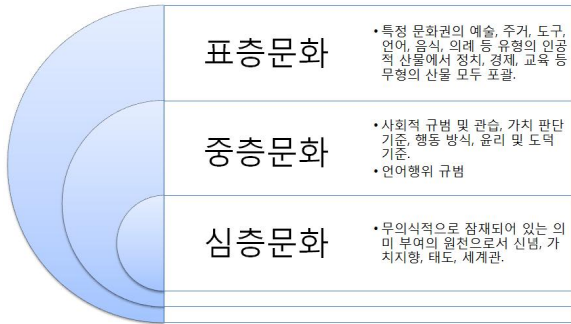
적 기준 등에 관한 이해와 함께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언어행위의 차원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관습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라면 후자에 대한 이해는 파악된 내용을 형식 및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5.1.2.3 심층문화

심층문화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신념, 가치지향, 태도, 세계관 등 세상을 인지하고 바라보는 틀과 의미 부여의 원천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심층문화는 한 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별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인류 공통의 보편성을 갖기도 한다. 심층문화는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며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인간의 행위와 창조물의 궁극적 배경으로서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역사적 경험의 오랜 축적과 전수에 의해 형성되는 심층 문화는 세 문화 차원 중 변화가 가장 더디며 추상성이 높고 가시적으로 관찰되지도 않아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이 이를 학습하고 습득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모바와 포터(Samovar & Porter 2007: 119)는 문화의 심층구조인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 가족, 국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가 신, 인간, 자연, 우주 등 추상적 차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관이라면, 역사는 과거에 실제 발생했던 사실을 토대로 세대에 걸쳐 축적된 가치지향이고, 가족은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주관적 인식의 틀이라 하겠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응축되어 한 문화권의 심층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통번역적 관점에서 심층문화는 텍스트의 심층부에 자리한 거시적이고 총합적인 맥락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팀(Hatim 2010)은 통번역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것이 텍스트의 궁극적 의미임을 전제할 때, 궁극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근원적 배경인 정신적 사실, 즉 해당 문화권에 속한 구성원들의 마음과 무의식 속에 자리한 신념과 가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2〉 문화지식의 범주



5.1.3 문화인식

앞서 살펴 본 ‘문화지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해의 대상이라면 ‘문화인식’은 자신의 관점과 필요에 맞게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인식을 통해서 ‘문화지식’을 능동적으로 자기화하여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문화이해능력에 있어서 ‘문화지식’이 이해의 대상이라면, ‘문화인식’은 이해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인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양국의 문화지식을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교와 대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5.1.3.1 비판과 성찰에 기반을 둔 문화인식

비판의 철학적 의미는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¹⁶⁾로 정의된다. 위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비판’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분석과 검토의 과정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보이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대상이 갖는 특징과 속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미를 평가하고 가치를 이끌어내는 인식의 태도이다.

16) 국립국어원 인터넷 사전.

인식의 방법으로서의 ‘성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전적으로 정의된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반추하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생산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인식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앞서 비판적 인식이 능동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이끌어 내는 인식의 방법이라면, 성찰적 인식은 자기 안에서 내성(內省)의 과정을 통해 생산적인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고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자기화하여 이해하는 인식의 방법이라고 정리된다. 통번역사의 두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지식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아내는 인식의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통번역사는 양국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적 경험들이 만약 자기 안에서 성찰이라는 ‘여과(filtering)’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일회성의 해프닝이나 기억으로 남을 뿐 통번역에 활용될 수 있는 문화능력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번역적 관점에서 문화를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양국의 문화를 통번역적 필요와 목적에 맞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5.1.3.2 비교와 대조에 기반을 둔 문화인식

비교와 대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검토하는 행위로 이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비교와 대조는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 비교는 성질이 같거나 관련 있는 것 사이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한 대상의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일정한 기준을 근거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대조는 상반되는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둘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문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비교와 대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 거리가 먼 이유로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면 비교보다는 대조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처럼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고 문화적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나라 사이에도 대조적인 차이점이 많다. 따라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와 대조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비교와 대조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김효중, 괴링(Göhring), 비테 등에 의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비테(Witte 1994)는 문화 이해를 위한 대조적 관점을 강조하며, 통번역사에게 요구되는 문화대조적 관점은 단순히 문화지식에 대한 병렬이 아니라 대조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 혹은 문화적 특수성이 그것이 도출된 배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문화비교와 대조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와 다른 타자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 통번역사는 자국의 문화는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비교적 낯선 제2언어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의식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샤프너(Schäffner 2000)는 문화능력을 B언어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문화지식의 심층과 중층문화의 특징에서도 확인했듯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는 특히 심층문화로 갈수록 이미 체화되고 당연시되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적 특징을 인식하고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통번역사에게 B언어능력만큼이나 모국어 능력이 중요하듯이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표현도 B언어문화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통번역사는 부단히 문화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하여 양국의 문화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번역 과정에서 텍스트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궁극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의 표층뿐 아니라 중층과 심층에 이르는 문화적 총체로서의 문화지식을 비교와 대조, 성찰과 비판적 관점으로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통번역적 필요에 맞게 자기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이 양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곧 통번역을 위한 문화이해능력이다.

5.2 문화중개능력

통번역을 위한 문화중개능력은 텍스트와 참여자 차원에서 문화적 차이로 야기되는 의사소통의 갈등과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문화 간 소통과 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통번역을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다. 본 절에서

는 문화중개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5.2.1 자문화중심적인 관점에서의 탈피

문화중개에서 ‘중개’의 사전적 의미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을 뜻하고 두 사물 혹은 사람 사이를 이어 주는 ‘다리’가 중개의 유의어로 제시되고 있다.¹⁷⁾ 즉 통번역사는 의사소통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중개의 역할을 맡은 통번역사가 가능한 아니 최대한 중립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두 의사소통 당사자가 속한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통번역사가 중개의 과정에서 균형감과 중립성을 잃고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다른 한쪽의 이야기에 동등하게 귀 기울일 수 없으며, 자신의 관점과 문화적 준거에 따른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통번역사 역시 특정 문화권에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천적으로 ‘투명한 유리’가 되어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번역사는 결론적으로 문화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 통번역사는 통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양 문화권의 경계를 오가며 두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깊이와 폭이 넓어질수록 문화적인 편견 없이 자국과 상대국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된다. 즉 양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편견 없이 문화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반면, 문화에 대해 무지하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수록 자신의 문화적 틀로 상대 문화를 재단하고 판단함으로써 문화적 편견은 더욱 굳어지고 균형 있게 두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이해능력은 문화중개능력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문화적 경계를 오가며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그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통번역사는 문화중개를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Neubert 2000, Witte 1994).

17) 국립국어원 인터넷 사전.

5.2.2 문화차이의 적극적인 조율

통번역사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전문가로 텍스트뿐 아니라 참여자 차원에서 문화 차이 혹은 문화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와 갈등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나아가 만약 클라이언트 혹은 의뢰자가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 혹은 자문화중심적인 관점에서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할 경우 통번역사는 두 문화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거나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통번역사가 문화 간 의사소통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이와 같은 능동적인 역할은 멘테리가 언급했던 ‘번역적 행위’에 해당한다. 텍스트 통번역 이외에 통번역사가 실제로 수행해 온 참여자 간 문화 중개 등의 ‘번역적 행위’는 지금까지는 간과되거나 혹은 통번역사 스스로 능동적 개입에 대해 갖는 경계와 부담, 투명한 유리를 기대하는 사회의 관습적 기대(Bahadir 2004)로 인해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참여자 차원의 문화중개가 궁극적으로는 텍스트 통번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텍스트와 분리된 별개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통번역사의 실제적인 통번역 수행과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중개의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설정되고 범주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5.2.3 문화 중개를 위한 의지와 노력

통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중개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통번역사 스스로 자신이 문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그러한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면 문화 중개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우선은 두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을 통해 균형감을 갖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자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듯 통번역사가 문화중개를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하

는 능력과 조건들은 하루아침에 문득 깨우쳐지거나 획득되는 것이 아니며, 통번역의 과정 속에서 부단히 학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반복적인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중개를 위한 능력은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통번역사 스스로 문화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중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문화중개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5.3 문화전이능력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중 문화이해능력이 서로를 정확히 알기 위한 능력이고, 문화중개능력이 서로를 만나게 하는 능력이라면, 문화전이능력은 문화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 문화적 변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 간 통섭에 기여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데에는 통번역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유입하는 창구로서 기존의 한 문화권에서 유효한 원칙을 문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Koller 1979, 김효중 2004a: 71 재인용). 본 절에서는 통번역사가 문화전이의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5.3.1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통번역이 사회문화적 효과를 창출하는 행위임을 전제할 때 통번역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언어뿐 아니라 문화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통번역을 통해 새롭고 낯선 언어, 문화, 개념, 패러다임 등을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고착화된 언어와 개념 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문화적 담론을 창출할 수 있다.

번역가 송병선은 번역가가 없다면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타인을 알지 못하면 폐쇄적인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알 수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번역가는 폐쇄성과 투쟁하고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강주현 외 2006: 130). 즉 통번역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은 통번역을 통해 서로 다른 문

화가 갖는 편견을 타파하고 극복하는 것이며,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통해 도착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고, 자문화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배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통번역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대안을 위해 새로운 개념과 문화를 도입하는 통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통번역사로서의 특권이자 사회적 역할일 것이다.

5.3.2 창조적 수용력

통번역사의 창조적 수용력은 ‘원전의 폐위’를 주장하며 통번역사를 의사소통 행위의 당당한 주체로 격상시킨 기능주의 번역학의 관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Nord 2006). 기능주의 번역학에서 출발텍스트는 통번역사에게 제시되는 다양한 정보원일 뿐 더 이상 번역 결정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통번역사는 통번역의 목적에 따라 출발텍스트에서 유용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번역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Nord 2006: 43). 이는 통번역사의 창조적인 수용능력이 강조되는 지점으로 통번역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출발텍스트는 도착문화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재탄생하게 된다.

다만 통역과 번역이 창조적 수용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번역의 경우 텍스트의 선정에서 번역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체 번역 과정에서 창조적인 수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반면, 통역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텍스트 선정 과정에 통역사가 참여 할 수 없고, 통역 전략의 측면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전달력 향상을 위한 창조적인 수용 외에 번역과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창조적 수용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번역사는 모두 통번역을 통한 문화전이의 과정에서 창조적 수용력을 발휘하지만 그 양상은 수동과 능동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3 비판적 통찰력

통번역사가 창조적인 수용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통번역을 통한 문화 전이와 변용의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번역 행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비판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의미하는 비판적 통찰력은 문화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통번역사가 문화 간 게이트 키퍼¹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비판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통번역사는 두 문화의 경계를 오고가며 문화 간 소통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두 문화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 간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 및 갈등의 양상, 그에 따른 리스크와 보상의 전략, 서로에 대한 인식과 전형적인 선입견 등 문화접촉과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을 포착하고 이를 의사소통의 실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번역사는 출발과 도착언어권의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문화 간 만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행착오의 과정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사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 이는 기존의 지역전문가 혹은 해당 문화전문가가 가진 역량과는 다른 것이다. 지역전문가의 경우 중국이나 미국지역전문가같이 해당 지역의 문화 자체에 대한 전문가라면, 통번역사는 통번역의 대상이 되는 두 언어권의 ‘문화 자체’ 뿐 아니라 두 문화 간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궁극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전이능력은 궁극적으로 통번역을 통한 문화의 전이와 변용을 통해 문화 간 통섭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통섭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의 혼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혼종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

18) 수문장. 커뮤니케이션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으로 뉴스나 정보의 유출을 통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어떤 뉴스는 보도하고, 어떤 뉴스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수용자들에게 뉴스의 문(gate)을 열거나 닫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 키퍼이다. 여기에서 뜻이 확대되어 가장 빨리 정보를 수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의견 선도자를 게이트 키퍼라고도 한다. 출처: 매경닷컴 경제용어. 두 문화권 간 교류의 과정에서 통번역사가 직접적으로 정보의 취사선택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번역의 과정에서 때에 따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의 수행을 통해 정보의 기능과 파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또한 가장 먼저 최신의 이국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통번역사를 문화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게이트키퍼로 비유하고자 한다.

어내는 능력이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통번역사 역시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해 문화를 이해하고 중개하며 나아가 전이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화 간 차이의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사귀며 오고 갈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변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6. 결론

중국의 번역학자 쉬권(許鈞2003: 363)은 번역을 다음과 같이 결혼에 비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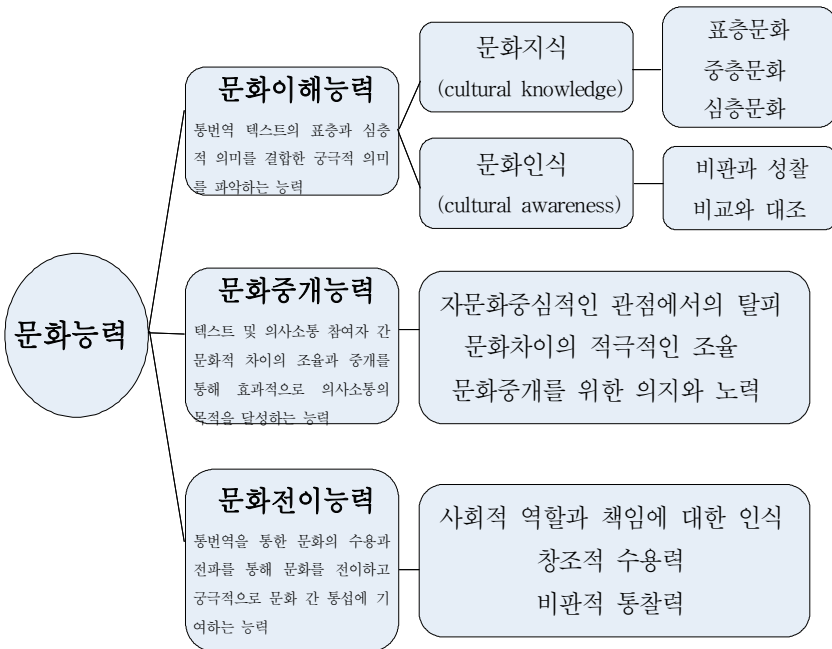
“번역은 서로 만나고, 알아가며, 공존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한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양측에게 모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상황에 따른 타협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에 도달할 수 있다.” (연구자 역)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으로 앞에서 고찰한 문화이해능력이 서로를 잘 알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면, 문화중개능력은 서로가 만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서로 낯선 이들 간의 만남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과 갈등을 예방하고 조율하며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문화중개능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쉬권이 낯선 이들이 서로 알아가고 만나는 과정을 비유하며 아름다운 결혼에 도달하는 것을 번역에 비유하였다면,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아름다운 결혼에 도달한 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까지를 통번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통번역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잉태하는 능력을 문화전이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번역 수행을 위해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화능력의 개념을 선행연구와 통번역과 문화

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이론적인 차원에서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은 문화이해능력과 문화중개능력 그리고 문화전이능력으로 구성된 총합적 개념으로 각각의 능력에 대한 하위 구성요소는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하지만 문헌에 기반 한 문화능력의 이론적 개념 추출은 연구자의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라 할 수 없으며, 이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이다. 이에 후속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추출한 문화능력을 실제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화하여 실증적인 차원에서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림 3>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의 개념과 구성요소



참고문헌

- 강보유 (2007) 「세계 속의 한류-중국에서의 한류와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문화 전파」, 『한국언어문화학』 4(1): 1-17.
- 강주현 외 (2006) 『번역은 내 운명』, 서울: 즐거운 상상.
- 김범송 (2008) 「중국의 한류 열풍과 험한류 현상에 대한 담론-한중 언론의 한류 견해와 주장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25집: 337-361.
- 김정숙 (1990) 『Dewey의 반성적 사고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김효중 (2004a)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 (2004b) 「문화변용으로서 번역: 텍스트생성의 모델화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32집: 273-301.
- 민창기 (2006)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능력의 개념과 구성」, 『관광학연구』 30(6): 51-71.
- 박용희 옮김 (2006) 『유럽의 재발견』, 서울: 을유문화사. (Schmale, Wolfgang (1956) *Geschichte Europas*, Böhlau Wien)
- 손지봉 (2006) 「서양의 번역문화범주 이론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 의미」, 『중국어문학지』 제21집: 389-412.
- 손지봉 (2007) 「번역과 문화전파」, 『중국어문학지』 제24집: 345-364.
- 이정주 (2006) 『문화적 차이가 사용자 연구 디자인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모 옮김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丸山眞男, 加藤周一 (1998) 翻譯と日本の近代, 東京: 岩波新書)
-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서울: 열린책들.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장애리 (2007) 「통번역과 문화시스템-한류 드라마와 중국사회 전통사상 부흥 간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회의통역과 번역』 9(2): 225-239.

- (201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연일, 주진국 옮김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기능주의 번역론의 관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정현숙, 김숙현, 최윤희, 김혜숙, 박기순 옮김 (2007)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Samovar, Larry A & Porter, Richard E. (2004)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5th ed, Belmont CA: Wadsworth.)
- 정혜연 (2008) 『통역학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 정혜옥 (2010) 『번역과 문화연구: 합일을 거부하는 반복』,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 정호정 (2008)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최재천 (2010) ‘새롭고 낯선 유혹, 통섭’, 수록처: 김경동 외 『인문학콘서트』, 서울: 이숲.
- 최효선 옮김 (2000a) 『침묵의 언어』, 서울: 한길사. (Hall, Edward T. (1973) *The Silent Language*, Oxford, England: Anchor.)
- 최효선 옮김 (2000b) 『문화를 넘어서』, 서울: 한길사. (Hall, Edward T. (1981) *Beyond Culture*, Oxford, England: Anchor.)
- 한국문학번역원 (2007) 『문학 번역의 이해』, 서울: 북스토리.
- 허지운, 신혜인, 허정, 신오영 옮김 (2010) 『번역학 발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New Paradigms or Shifting Viewpoint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王秉欽 (2004) 『20世紀中國翻譯思想史』,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 (2007) 『文化翻譯學: 文化翻譯理論與實踐』,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 許鈞 (2003) 『翻譯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 Bahadir, Sebnem. (2004) ‘Moving in Between: The Interpreter as Ethnographer and the Interpreting-Researcher as Anthropologist’, *Meta* 49(4): 805-821.
- Hermans, T. (2000) ‘Translation's Representations’, In Xie, T. (ed), *Construction*

- of Translation from a Cultural Perspective*,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1-20.
- (2009) 'Translation, Ethics, Politics', In Munday, J.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93-105.
- Katan, D. (2009a) 'Culture', In Baker, M. and Saldanha, G.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70-73.
- (2009b)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Munday, J.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74-92.
- Lefevere, André. (ed) (1992) *Translation/History/Culture: A Source Book*,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am, Won Jun (2008) 'How Student Translate Culture-specific Item: An Analysis of Student Translation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3): 151-175.
- Neubert, A. (2000) 'Competence in Language, in Languages, and in Translation'. In Schäffner. C. and Adab. B. (eds),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18.
- Nida, E. A. (1945)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 Problems', *Word* 1: 194-208.
- (1964)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Problems, In Hymes, Dell H. (ed),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New York: Harper Collins, 90-100.
- Schäffner. C. and Adab. B. (eds) (2000)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chäffner, C. (2003)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tudies in Communication Sciences* 3(2): 79-107.
- Witte, H. (1994) 'Translation as a Mea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Cultures', In Dollerup, C. and Lindegaard, A.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Insights, Aims, Vision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69-75.

—— (1996) 'Contrastive Culture Learning in Translator Training', In Dollerup, C. and Appel, V.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3: New Horizon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73-79.

강의자료:

Hatim, B.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초청 박사과정특강 발표자료 및 강의록.

[Abstract]

Cultural Competence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Focusing on Theoretical Studies

Chang, Aili

(Ewha Womans University)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re regarded as a communicative activity performed between different languages and different cultures. Having higher levels of language competence is referred to as a prerequisite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However, cultural competence that is equally important has not drawn much attention until recently and related research has been scar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review existing theoretical studies on cultural competence discussed within the community of th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y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nd culture at the levels of text, participants, and society in the communicative perspective.

Through the theoretical approach, it was concluded that culture is an object of understanding to extract the exact meaning of a text in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process, an object of mediation for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an object of transfer to facilitate socio-cultural change and progress as a result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defines cultural competence as a comprehensive concept consisting of cultural understanding, cultural mediation, and cultural transfer and specifies sub-elements in each of these abilities.

▶ Key Words: Translation, Interpreting,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understanding, Cultural mediation, Cultural transfer

장애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aili0022@naver.com

관심분야: 문화능력, 통번역교육, 통번역 사회학, 문화 전이와 변용

논문투고일: 2011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5일